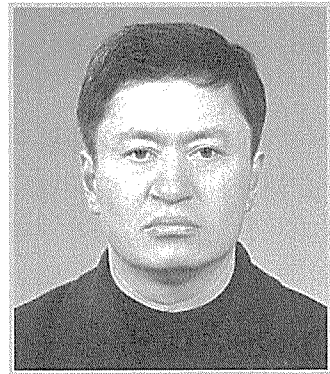


항 콕시듐제 지수를 매년 인터넷으로 공개하라

이 인 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계용 배합사료에는 콕시듐증의 예방의 일환인 셔틀과 로테이션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금년 5월 1일 최종 확정된 배합사료 첨가지침에서 승인된 항콕시듐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야외현장에서도 톨트라주릴을 비롯한 치료용 항콕시듐제의 판매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콕시듐증의 방제가 항콕시듐제 만을 가지고 해결되어질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은 육계농가 뿐만 아니라, 양계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육계농가들이 콕시듐증의 예방과 치료

를 배합사료용 항콕시듐제와 필드용 콕시듐 치료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배합사료에서 사용이 허용된 항콕시듐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1992년도에 개최된 가금학회의 심포지움을 마지막으로 항콕시듐제에 대한 내성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국립수의과학원 조류질병과로부터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배합사료에

첨가되고 있는 저가의 미 검증 중국산 항콕시뚱제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항콕시뚱제에 대한 효능의 확인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는 육계농가들이 100%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료업체와 항콕시뚱제 공급업체들은 육계농가들을 위해 실제 시험을 통한 항콕시뚱제의 효능확인을 국내에서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가 감축하려는 동향의 파악에만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육계농가들은 항생물질을 이미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최근에도 항콕시뚱제의 효능측정을 위한 항콕시뚱지수(ACI, 160이상)와 최적 항콕시뚱제 효능(POAA, 50이상)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논문(Veterinary Parasitology, 119: 261-276, 2004)과 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양계정보지(World Poultry, Vol.21, No.7, 2005)에서 내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아이오노포 성분이 들어있는 배합사료를 그대로 사용해 농장방역비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지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내성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아이오노포와 EU의 동물용 사료첨가제 제조업체협회(FEFNA)에서 내성의 발현속도가 너무 빨라 퇴출한 모제제(중국산은 국내 재검증이 절대 요구됨)와 같은 화학요법에 의한 셔틀 및 로테이션 프로그램에 의한 콕시뚱증의 방제는 한계에 달해 교차방어능력이 우수한 육계용 콕시뚱백신과 항콕시뚱제의 병용사용이나 천연 콕시뚱제(국내에서도 보조 사료로 승인)의 사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콕시뚱백신의 사용은 육계사료에서 항콕시뚱제의 사용금지라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해 시대의 주류를 현실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천연 콕시뚱제는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보조사료 성분으로의 편법등록과 약사법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과잉선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코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료공장 품질관리 및 구매담당자들은 90년대 이전의 자료가 아니라 2005년 현재를 기준으로 효능이 학술논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콕시뚱제, 특히 중국산 저가 항콕시뚱제들과 국내에서 사양시험 한번 거치지 않은 중국산 복제제품(디클라주릴)이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하여 원조 제품을 교체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육계 농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통찰해서 효능의 확인이 불확실한 제품과 특히 원조사의 시험자료를 무단 도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육계농가의 콕시뚱증 발병을 가중시키는데 공헌하는 제품은 사용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EU와 일본에서는 항콕시뚱제에 대한 재평가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항콕시뚱제 개발회사들은 실증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효능의 검증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동물약품업체들이 현실적인 여건을 내세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육계농가들은 갈수록 내성의 증가로 효능은 저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원조사에 비해 저가인 중국산 제품의 효능점검을 양계협회 차원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연계해서 강력히 추진하여 공신력 있는 실증자료가 매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양계농가 모두가 정보를 공유토록 해야 한다. 